

공간정보 분야 창업기업 육성 '맞손'

시-LX-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ICT기업 창업지원 협력 업무협약 시·진흥원, 창업기업 위한 입주 공간 제공·LX, 창업기업 5개사 지원

전주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공간정보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원(이하 진흥원)은 11일 전주부시장실에서 박형배 부시장과 최규명 LX 부사장, 이영로 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정보 창업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한 '지역ICT기업 창업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진흥원은 혁신적인 창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

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 안에 공간정보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158.9㎡(48평) 규모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LX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간정보 등 창업기업 5개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LX는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전북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입주기업 선정 △창업기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판로 개척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창업자금과 인력양성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전북공간드림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의 인력양성은 물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배 전주부시장은 "새롭게 건립한 전주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 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북 공간드림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협력의 밑거름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시는 공간정보가 첨단 정보기술과 융합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LX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LX,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1일 전주부시장실에서 박형배 부시장과 최규명 LX 부사장, 이영로 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정보 창업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한 '지역ICT기업 창업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남규 의원(송천1·2동)이 11일 선출됐다.

"11대 의회 결실 맺기 위해 최선"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남규 의원 선출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남규 의원(송천1·2동)이 11일 선출됐다.

시의회는 전임 강동화 의장이 지난달 29일 도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히면서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해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김 의원을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61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결위(闕

位)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임 김 의장은 6대 의회부터 11대까지 6차례나 주민의 선택을 받은 다선 의원으로 지역의 문화 정책을 비롯한 전주 발전에 공헌해왔다.

김 의장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주적인 의회 구현과 11대 의회의 소중한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발전 공헌 '전주시민대상·모범시민상' 수상자 선정

6월 3일 전주시민의 날 행사서 시상식 진행

전주시의 투철한 봉사정신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2022 전주시민대상·모범시민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전주시는 각계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8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효행대상

최경화 씨(58세, 여) △교육학술대상 신상욱 씨(56세, 남) △문화예술대상 김정순 씨(71세, 여) △산업·기술대상 이운영 씨(60세, 남) △사회봉사대상 강영이 씨(71세, 여) △체육대상 백연기 씨(67세, 남) △환경대상 정명운 씨(57세, 남) △복지대상 성동학 씨(63세, 남)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김대준 씨(송천2동) △한정근 씨(평화1동) △이동엽

씨(여의동) △조지영 씨(효자3동) 등 4명을 평소 활발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된 2022년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바가 크고,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전주시민에게 귀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돼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전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민대상은 여러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며 "전주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런 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는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贵宾으로 초청되는 등 수상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윤상 기자

"아이돌봄정보 한 곳에 '돌봄 하나로센터' 구축"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효율적 통합관리·인력 전문성 강화"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1일 "다양한 아이돌봄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통합관리센터인 '돌봄 하나로센터'(가칭)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하고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뭐해요? 정보 접근이 어렵고 복잡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걸요"

우 예비후보의 돌봄통합관리센터의 구상은 학부모들의 불편 호소에서 시작됐다.

이날 발표한 '돌봄 하나로센터'는 우 예비후보의 '전문현답' 행보를 통한 여론을 발전시킨 정책이다.

"돌봄 하나로센터"는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64개소), 다함께 돌봄(16개소),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정보를 모두 모아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시의 다양한 돌봄정책 관리가 부처별, 기관별로 산재돼 있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며 "학부모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통합관리센터를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시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구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전주시건강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는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함께, 아동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아동의 권리가 기반되지 않고, 돌봄센터의 수만 늘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아동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이용자 중심의 돌봄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돌봄시간대, 아동의 연령, 관심 등을 반영해 가장 적합하고 친절한 '전주형 돌봄' 시스템을 다듬어 나가겠다"며 "인접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신청하세요"

향토음식 지정 7개 품목 주 메뉴 취급 업소 대상 20일까지 신청 접수

전주시가 맛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판매 업소를 발굴해 지원한다.

시는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이자 미식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중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페백음식 등 향토전통

음식으로 지정된 7개 품목을 주 메뉴 취급하는 업소다. 또, '전주시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 따른 기능보유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종사해야 한다.

희망 업소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관광산업과 한식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산업과 한식팀

(063-281-5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음식과 서비스, 위생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주시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서와 표지판이 교부되며, △전주음식 홈페이지에 업소 소개 △향토전통음식업소 육성·발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국내외 음식축제 참가

/김윤상 기자

'불법 석유제품 유통 예방' 주유소 합동점검

전주시·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점검반 구성 추진

전주시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불법 석유제품 유통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불안정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 석유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전주지역 주유소

를 불시에 방문해 사업장 내 석유제품의 품질 검사 및 정량미달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현재까지 △가짜 석유 판매 1개소 △정량미달 판매 2개소 △가짜 위반사항 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했다.

/김윤상 기자

봄철 화재 예방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점검

전주시, 16-25일까지 실시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위험 우려가 있는 고형연료사용시설 5곳과 폐기물소각시설 6곳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보관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준수 여부 △연소감지센서 및 소화설비 등 정상가동 유무 등이다.

시가 폐기물소각시설 집중 점검에 나서게 된 이유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보관 중인 다량의 폐기물과 고형연료의 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종남 전주시 지원순환과장은 "폐기물소각시설 특성상 폐기물을 다량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발화 가능성과 연소 확대 가능성이 높아 항상 화재위험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위험을 최소화해 시민 안전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역에 고속버스·시외버스 환승센터 건립"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복합쇼핑몰 추진 관광객 편의 제공"

국민의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가 11일 전주역에 고속버스·시외버스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기존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은 전주명품도시에 걸맞지 않게 노후화되었고, 협소하다"며 "기존 터미널을 전주역으로 옮겨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환승센터 건립 공약의 배경에는 어제 취임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기 약속된 공약으로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건설 등과 연계사업이며, 천안-세종-전주KTX 신설은 김 후보의 역점사업이다. 이를 연계하여 고속버스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이 환승센터는 복합쇼핑몰을 추진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 복합쇼핑몰에는 전주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상품매장 등 전주만의 쇼핑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존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는 지난 공약에서 밝힌 디지털플랫폼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